

# 내 탓이로소이다

이라크에서 싸움이 터지자마자 곳곳에서 기름 초롱이 줄을 서고 있다. 코흘리개 어린애까지 물고 나와서 기름 한 통 더 사두려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소리가 드높다. 왜 좀 진득하고 점잖게 있지 못하고 곧바로 하늘이 뒤집히는 듯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서두르느냐고 한다.

혼자 있을 땐 낮잠이나 텔레비전이요, 둘이 만나면 남 헐뜯기, 모였다 하면 술판, 앉았다 하면 화투판, 어울렸다 하면 춤판. 싸움판이 줄어 든 것이 그나마 고맙다고 할까? 이것이 우리 삶의 꼬락서니다. 금수강산이 쓰레기통이 된지도 오래다. 이젠 마실 물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고 그만 둘 것처럼 하루살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술잔을 들었다. 땅을 다지도 않고 일손을 놓았다. 힘들이지 않고 때돈을 벌어 마음대로 펄펄 써 보자는 비뚤 마음가짐이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빼앗아 버렸다. 너나 할 것 없이 땅 사기, 아파트 사기에 눈이 별정다. 아직 피지도 않은 꽃송이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웃음 팔기에 바쁘다.

더늦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우리 스스로 생각과 몸가짐을 가다듬자.

들어보면 다 옳은 말씀이다.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다. 내 탓이고 네 탓이다. 다 우리 탓이다. 이제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요 우리 아들딸들에게 바로고 참된 삶을 물려주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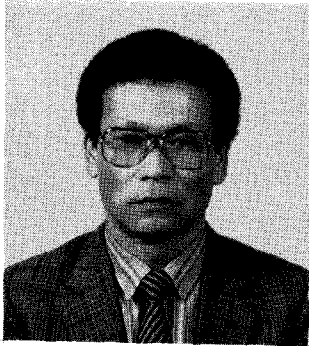
다 아는 이야기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무엇 하나 바뀐 것도 없고 고치는 사람도 없다. 목소리만 높았지 빈 하늘에선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나는 네 탓이라 하고 너는 내 탓이라 하니 따져보면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잘못된 사람이 없으니 고치는 사람도 없다. 큰일 났다, 걱정

이다,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돌아서면 도로 그것이다. 나는 “바당 풍”해도 너만 “바람 풍”해라는 투다.

말이란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나 행동이 다 말에 이끌려 간다. 말로 떡을 하면 마을 사람이 다먹고도 남는다. 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배부른 사람도 없다. “내 탓이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 말이 재주를 부리면 우스갯거리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장난이 되고 거짓되면 사람은 믿음을 잃게 된다.

값 올리는 것을 “현실화”라 한다. 느닷없이 한

고 칠 말	바 른 말
~것 같아요	~입니다
김쌌다	망쳤다
기차네	좋네
꾸리하다	언짱다
끝내준다	잘한다
철판 깔았다	뻘뻘스럽다
놀고 있네	까불고 있네
별 볼일 없다	쓸모 없다
삼삼하다	예쁘게 생겼다
잡고 있네	잘하네
제긴다	안한다
총치고 날샌다	끝난다
좋아하네	생각지 말라
죽여주네	참 좋네
쪽팔려	부끄러워
손시럽다	어색하다
토끼이 놓자	달아나자
토킨다	달아나다
피봤다	창피봤다
한번 읊어 봐라	얘기해 봐라
한입하자	같이 먹자
혼자하지	그만하지



김 정 섭  
(우리말바로쓰기운동모임회장)

밤중에 기름값이 현실화 된다면 어찌 한 초롱이라도 더 사두려 앓겠는가? 그것도 아침에 “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뒤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도 값 올린 것이 아니라 현실화했다고 하나 이것이 바로 말장난이다.

낮잠자는 시간에 글 한 줄이라도 더 읽어라. 우리 나라 사람만큼 책 안읽는 거래도 없다. 올바른 삶의 길이 책 속에 있다. 값진 삶은 책에서 얻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책을 가까이 하자. 하지만 텔레비전에선 온갖 잡스러운 것이 눈을 잡아 끈다. 책은 덮어 놓고 눈은 저절로 텔레비전에 못박힌다. 가만 있어도 보인다. 저 재미난 것을 어찌 안 보고 배길 수 있단 말인가?

들만 모이면 화투다. 돈 놓고 돈 먹기다. 누구는 한탕에 몇 십억원을 먹는데 그런 재주없는 사람이야 “설사”나 하고 죽을 수밖에. 먹고 살기에 바쁜데 놀이문화란게 다 무어냐?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 끝이 오늘 이 꼴이다. 이래서 술판이고 저래서 출판이다.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사람의 한살이란 한 결의 꿈이다. 숨 붙어 있을 때 재미 있게 지내는 게 장땡이다. 이게 다 네 탓이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한다. 호수물이 더러워지고 강물이 썩어서 아무리 잘 걸러도 바로 먹기가 겁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높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겁 없이 그 물을 마셔 보인다. 좋은 물이라고 장담한다. 곧 이어 강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바로 네 탓이라 한다. 가루비누를 너무 많이 쓰

고 기름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이라고 나무란다. 빨래틀(세탁기)은 가루비누를 쓰도록 되어 있다. 가루비누와 빨래틀을 만드는 것은 돈 불려고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고 사서 쓰는 사람만 죽일 놈이다. 내가 버린 비눗물 내가 마시면서 무슨 소리냐? 한결같이 네 탓이다. 내탓은 어디 가고 네 탓만 남았다.

산과 밭을 까뭇개서 “골프장”을 만든다. 국민 건강에는 골프가 더할 수 없이 좋단다. “골프 회원권”이 없으면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한다. 골프장이 모자랄 수 밖에. 골프장은 그저 산만 없애는 게 아니다. 독한약을 흘려 보내서 강물을 못 쓰게 하고 먹는 물을 더럽힌다. 그래서 못 만들게 떠든다. 마땅히 더는 안 만든다고 한다. 돌아서자마자 새로 만들게 한다.

기름을 아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밤잠도 못자면서 애를 태우는데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창문을 꼭꼭 닫고 비닐을 덧 씌워서 더운 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라. 뒤 이어 겨울철에는 방안 공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째야 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아 넣을 공기가 없다. 차라리 더러운 대로 방안 공기가 오히려 낫다. 이젠 산성비, 산성눈, 오염된 공기, 게다가 산성안개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눈을 부라린다. 이것은 누구 탓인가? 물론 네 탓이다.

아무 것도 믿지 못한다. 앞날인들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 잘못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비뚤어진다. 모듬살이의 틀이 일그러진다. 바른말을 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짓말은 참말을 밀어내고 거짓 행동은 참 행동을 가로 막는다. “인간성과 도덕성을 되찾자.”고 백 번 외쳐봤자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말이 바로 서지 않고선 될 일이 아니다. 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바른 말을 찾아 써야 한다.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한다. 바른 말, 참말을 되찾자. 말은 참삶의 바탕이다.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모두가 우리 탓이로소이다. 이젠 말 장난은 그만하자, 제발. ◼